



“영어체험캠프 신나요”

전남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전남도가 올해로 4번째 실시하는 ‘2010 전남도 영어체험캠프’가 27일 곡성군과 담양군, 영암군 등 5개 권역에서 일제히 열렸다. 담양도립대학에 마련된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원어민 강사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남구 등 8곳 오늘 재보선 투표

밤 10시께 당락 윤곽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28일 오전 6시를 기해 광주 남구 52개 투표소를 비롯한 전국 8개 선거구 575곳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관련기사 3·4면〉

광주 남구를 비롯한 ▲서울 은평을 ▲인천 계양을 ▲강원 원주 ▲태백·영월·평창·정선 ▲철원·화천·양구·인제 ▲충북 충주 ▲충남 천안을 등 8개 선거구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서울 은평을만 재선거고 나머지 7개 지역은 보궐선거 지역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주 남구의 민주당 장병완, 민주노동당 오병은 후보 등 모두 29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나 서울 은평을과 충주 선거구에서 야권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돼 일부 후보가 사퇴했다.

이날 열리는 재보선은 선거구가 8곳이나 되는 만큼 ‘미니총선’의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특히 광주 남구의 경우 민주당 장병완 후보와 비 민주당 단일후보인 민주노동당 오병은 후보가 일대일 구도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 이날 투표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한, 정치 거물들의 격돌이 이뤄져 최대 관심을 끌고 있는 서울 은평을의 경우 선거 막판 야권 단일화가 이뤄져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재보궐 선거는 보통 선거보다 2시간 더 연장된 오후 8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출근 전에 투표를 못 한 유권자는

퇴근 이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출근은 1시간 늦게, 퇴근은 1시간 일찍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광주 남구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당락의 윤곽은 광주 남구의 경우 이날 밤 10시 전후에 드러나는 등 대부분 11시 이전에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여름휴가철에 실시되고, 한 달 전에 전국 단위의 6·2 지방선거가 열린 만큼 유권자의 피로감이 겹쳐 투표율이 20% 중반 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LH사업’ 차질 속출

주거환경개선 중지·재검토... 효천1·용산지구 착공 지연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격적인 사업 속도에 나선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단이나 재검토, 도시개발사업 지연 등이 잇따라 파장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7일 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와 환경월야면에 조성 중인 ‘빛그린산업단지’의 보상 지연(광주일보 7월26일자 1면)에 이어 광주 효천1지구와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광주시 남구 송하동·임암동과 서구 매월동 일원 93만7000㎡ 규모의 효천1지구 개발 사업은 광주 서부역 세권 중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용산지구는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막고 환경친화적 주거환경을 위해 동구 용산동 일대 19만2000㎡에 추진 중이다.

이들 지구는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사실상 연내 착공은 물 건너간 것으로, LH의 경영 여건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기업이 협력해 추진 중인 주거·상업·행정기능을 갖춘 지하 4층, 지상 31층 규모의 쌍둥이 빌딩을 건립하는 목포 남교지구 재건축 사업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광주 지원3구역(5만5900㎡ 규모)과 유촌구역(9만6590㎡)은 이미 사업이 중지됐다. LH는 올해 초 광주시

■광주·전남 LH 주요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규모(㎡)	추진현황
광주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	50,590	중지
광주 유촌구역	96,590	
광주 동명2구역	63,233	재검토
광주 양림2구역	81,162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4,081,000	보상 지연
광주 효천1지구 도시개발	937,000	착공 지연
광주 용산지구	192,000	
목포 남교지구 재건축	31층 쌍둥이빌딩	발주 지연 우려

(자료:LH·광주시)

에 이들 구역에 대한 사업 참여 중지를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 국토해양부 주관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동명2구역(6만3233㎡)과 양림2구역(8만1162㎡)도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사업면적 중 30%는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70%는 현저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이들 구역의 사업에 정지된 지점도 주민들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LH 광주·전남본부 관계

자는 “광주 지원3·동명2구역 등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일뿐 LH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도시개발사업인 효천1지구와 용산지구의 경우 이미 토지 보상이 끝나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 양림동 한 주민은 “공기업이 추진한다고 해서 굳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 중단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사업으로 공기업인 LH가 그동안 대부분의 사업을 시행해왔다”며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이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돼 주민 불편은 물론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현석·박정욱·김지을기자 jwpark@

문화·예술법인 전국 572개나 되는데

‘문화수도’ 광주엔 11개 뿐

‘문화수도’ 광주에 있는 문화·예술법인이 11개로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34개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다.

27일 국제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을 통틀어 공익법인(2008년 등 록법인 기준)은 모두 2282곳으로 이 가운데 종교보급법인이 57.3%(1308곳)를 차지했다.

광주는 총 808개 법인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5곳이 종교보급법인으로, 왕성한 포교활동을 뒷받침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144곳), 학술·장학·자선법인(122곳), 교육사업(65곳), 문화·예술(11곳), 의료목적법인(5곳), 기타(36곳) 순이었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추진중인 광주 지역 16개 시·도 가운데 문화·예술법인이 전무한 울산과 제주(3곳)에 이어 3번째로 적었다. 국내 전체 문화·예술법인 572곳에서 광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그쳤고, 53%는 수도권에 있었다.

광주의 사회복지법인수도 전국 11위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1474개 법인이 있는 전남의 경우 종교복지법인이 883곳으로 6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226), 학술·장학·자선법인(134), 교육사업(91곳), 예술·문화(34곳), 의료목적법인(30곳), 기타(76곳) 순이었다.

전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문화·예술법인수가 서울(244곳)·경기(51곳)·경남(42곳) 다음으로 많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의 사회복지법인 수는 전국 3위였다.

전국적으로 전체 공익법인은 2008년 2만7811개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중 아이웨이웨이

공동감독에 선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내년에 열리는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 2일~10월 23일)를 이끌 공동예술감독에 베이징을 리피 주경기장을 설계한 중국의 건축가 겸 예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53·사진)가 선임됐다. (인터뷰 12면)

아이웨이웨이 감독은 지난 5월 선출된 승효상(58·건축사무소 이로제 대표)씨와 함께 세계 디자인 축제인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총 지휘하게 된다.

아이웨이웨이 감독은 1978년 베이징 영화학교에 입학해 아방가르드 예술단체 ‘스타스(Stars)’를 공동 결성했고,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 졸업 후 1993년까지 12년 동안 뉴욕에서 활동했다.

베이징 소재 CAAV 공동설립자 겸 예술감독(1997), 진화건축 예술공원 프로젝트 큐레이터로 활동했고, 건축 스튜디오 ‘FAKE Design’을 설립해 2008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 설계를 맡았다. /오광록기자 kroh@

자율형 사립고 지정

- 대한민국 최고 경쟁력을 모읍니다.
- 한국 최상위 본교 4년
- 경교육 수준 최첨단 명품 교육시설
- 프리미엄 공학급 제도
- 2009년 교육부 선정 영어 리더 학교

유망한 자율형 사립고
보문고등학교

익교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워달라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망!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광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넘치는 열정! 마르지 않는 추억!!

상상을 뛰어넘는 **이수(水)리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3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THE JINJIN WATER FESTIVAL

2010. 7. 28 ~ 8. 1 (5일간)

전남 정읍 땀진강 및 정읍명 생태공원 일원

정읍군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추진위원회

홈페이지 : www.jinjin.or.kr / 인터넷전화 : 010-994-0000 / 행사문의 전화 : 265-4253 / 24시간 콜센터